



김동혁(연세대)

1. 서론

성서의 첫 번째 책에서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되고(창 2:2-3), 성서의 두 번째 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명령하신다(출 20:8). 이같이 안식일은 토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 예언서 곳곳에서, 후에는 느헤미야기에서도 두드러진다. 성서 전승을 따라 발전해 온 안식일의 중요성은 유대교의 형성 이후에도 계속 강조되어, 무어(George Foot Moore)에 의하면 안식일은 할례 의식과 더불어 유대교의 두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이 되었다.¹⁾ 안식일은 기독교 전통에서도 소

1) George Foot Moore,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The Age of Tannaim* (3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2:16.

중하게 여겨지는데, 물론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의 날짜가 옮겨지면서 ‘주님의 날’(주일)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²⁾

성서 시대 안식일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한 계기 혹은 본문은 무엇이였을까? 한두 사건이나 시기, 본문 전승을 특정하려는 시도는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대강만 살펴보아도 세 전승이 두드러진다. 즉, 토라의 전승,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나 제3 이사야 등을 아우르는 강제 이주기 및 강제 이주기 이후의 예언자들의 전승,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기의 전승에서 모두 안식일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 논문은 이 중 제3 이사야(사 56-66장)의 안식일 이해를 살피려 한다.³⁾ 제3 이사야의 본문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본 논문을 통해서 필자가 논증하고자 하는바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이해는 다른 성서 전승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면이 있고 따라서 안식일 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계기를 구성한다. 요컨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안식일 신학을 이해할 때에, 제3 이사야의 관련 본문을 논의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둘째, 아래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에서 제3 이사야서는 다른 책들에 비해 덜 다루어졌다.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에서 안식일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고 제3 이사야에 관한 연구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제3 이사야 속의 안식일 이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을 정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이 변화 과정을 개관하려면 Samuele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Rom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Press, 1977) 또는 D. A. Carson (ed.),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2)을 참고하라.

3) 이사야서를 제1, 제2, 제3 이사야로 구분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돔(Bernhard Duhm)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Duhm, *Das Buch Jesaj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돔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이 구분은 여전히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오늘날의 다수의 목소리로서, 예컨대 Christopher R. Seitz, "Isaiah, Book of (First Isaiah)",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Garden City, NY: Doubleday, 1992), 3:472-488을 보라. 제3 이사야의 주요한 신학 주제를 다룬 국내학자의 연구로서 김래용,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1-40을 보라.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다음 단락에서는 구약 전반의 안식일 신학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개관할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제3 이사야에서 안식일을 언급하는 본문인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⁴⁾ 각 본문을 논의할 때에는 먼저 간략한 주석을 제시한 후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

2. 구약 속 안식일에 관한 연구들

안식일을 다룬 학문적 연구를 모두 살피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구약 성서 속 안식일을 논의한 연구 몇 편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단락을 통하여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이해를 다룬 저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구약의 안식일』(*The Old Testament Sabbath: A Tradition-Historical Investigation*, 1974)⁵⁾에서 앤드레이슨(Niels-Erik Andreasen)은 ‘안식일’을 언급하는 구약의 모든 본문을 그 형태, 내용, 기능, 역사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 그 전승들을 해석한다. 앤드레이슨은 전승들을 해석할 때에 다음의 주제들을 따른다. 곧 “안식일과 일곱째 날”, “사회 제도로서의 안식일”, “제의 제도로서의 안식일”, “법의로서의 안식일”, “창조 안식일”, “안식일과 언약”이 그것이다. 결론에서 저자는 안식일에 관한 주제들과 전승들을 역사 순서대로 나열함으로써 구약 안식일의 전승사를 재구성한다. 그는 안식일 신학 발전의 결정적인 시기를 강제 이주기 이전 특히 히스기야 시대

4) 제3 이사야에서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66장 23절에서 한 번 더 나온다. 본 논문은 이 본문을 다루지 않을 터인데,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안식일 자체에 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 66장 23절은 우주적 구원을 표현하고,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있을 하나님 예배의 영속성을 강조하므로, 안식일의 본질, 준수 방법, 함의 등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5) Niels-Erik A. Andreasen, *The Old Testament Sabbath: A Tradition-Historical Investigation* (SBLDS 7; Missoula, MT: University of Montana Press, 1972).

로 이해하는데, 이는 본 논문과 대조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앤드레이슨이 안식일의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데 반해, 본 논문은 안식일 준수 of 실제적인 내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스트랜드(Kenneth A. Strand)가 엮은 『성서와 역사에서의 안식일』(*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1982)⁶⁾은 안식일에 관한 논문 24편을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대부분 안식일 교단에 속한 학자들이다. 여섯 편은 오경에서 신약의 책들까지 성서의 시대를 다루고, 일곱 편은 교회의 시대를 논의하고, 나머지 논문은 안식일의 신학을 다룬다. 구약의 안식일을 논의하는 논문은 두 편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하젤(Gerhard F. Hasel)이 쓴 “오경의 안식일”(The Sabbath in the Pentateuch)이고 다른 하나는 하젤과 머독(W. G. C. Murdoch)이 함께 쓴 “구약의 예언서와 역사서의 안식일”(The Sabbath in the Prophetic and Historical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이다.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논문이 두 편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성서 특히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들여다보려는 학도에게 이 책은 분명 아쉬울 것이지만, 안식일 신학을 시대를 따라 개관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으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카슨(D. A. Carson)이 엮은 『안식일에서 주일까지』(*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1982)⁷⁾에 담긴 12편의 논문은 구약, 유대교, 신약, 중세, 종교 개혁 시대 등 다양한 성경책과 배경 속의 안식일과 주일에 관하여 탐구한다. 스트랜드의 책에 대해 한 말을 이 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즉, 이 논문집은 안식일 연구에 관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구약의 안식일을 다룬 논문이 한 편밖에 없다는 점은 구약학도에게 아쉬운 측면이다.

로빈슨(Gnana Robinson)의 단행본 『구약 안식일의 기원과 발전』(*The*

6) Kenneth A. Strand (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7) Carson (ed.), *위글*.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A Comprehensive Exegetical Approach, 1988)⁸⁾은 안식일의 기원, 구약 속에서의 안식일,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의 통합과 평등의 상징으로서의 안식일을 다루는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다.

에스케나지(Tamara C. Eskenazi)와 해링턴(Daniel J. Harrington)과 셰이(William H. Shea)가 엮은 『유대 및 기독교 전통에서의 안식일』(*The Sabbath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1991)⁹⁾은 제목 그대로 유대교와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다양한 종파 각각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어떤 주제적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 주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 점은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최근 저작으로 앤드류스대학교의 박사 학위 논문인 프레이(Mathilde Frey)의 “오경의 안식일”(The Sabbath in the Pentateuc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2011)¹⁰⁾이 있다. 이 연구에서 프레이는 오경 속 안식일 관련 본문 각각의 문학적 특징을 그 맥락 속에서 탐구하고, 이로써 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안식일 신학을 발전시킨다.

지금까지의 개관은 구약의 안식일 관련 연구 중 일부를 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곧 구약 전반의 안식일 이해를 다룬 연구는 최근 것 중에는 없는 듯하며, 구약의 예언서 혹은 이사야서의 안식일 이해를 다룬 작품은 오래된 저작 중에도 발견하기 힘들다. 두 영역 모두 학계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된다.¹¹⁾

8) Gnaa Robins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A Comprehensive Exegetical Approach* (BBET 21;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8).

9) Tamara C. Eskenazi, Daniel J. Harrington, and William H. Shea (eds.), *The Sabbath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New York: Crossroad, 1991).

10) Mathilde Frey, “The Sabbath in the Pentateuc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Ph.D. diss., Andrews University, 2011).

11)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이해를 다룬 연구로 필자가 발견한 유일한 예는 루슈코프스키(Leszek Ruzskowski)의 것이다. Ruzskowski, “Der Sabbat bei Tritojesaja”, Beat Huwlyer et al. (ed.),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AOAT; Münster: Ugarit-Verlag, 2001), 61–74. 국내학자가 구약

3. 이사야 56장 1-8절

이사야 56장 1-8절은 번역은 다음과 같다.¹²⁾

¹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이는 곧 내 구원이 오며 내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²복되다, 이를 행하는 사람, 그것을 붙잡은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 자기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자!

³야훼와 연합한 이방인은,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에서 나를 참으로 끊어 내실 것이 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내시는, ‘자, 나는 마른 나무로구나’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⁴이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시들 중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내 언약을 붙잡는 이들에게는, ⁵그들에게 내가 내 집과 내 담장들 안에서 아들과 딸들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줄 것이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⁶그리고 야훼와 연합한 이방인들, 곧 그분께 시중들고자 하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려 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모든 자와 내 언약을 붙잡는 이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오고 내 기도의 집에서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물들이 내 제단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는 내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⁸주 야훼,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의 말씀이다. “내가 그에게, ⁴이미 모아들인 자들에게로, 더 모아들일 것이다.”

의 안식일을 다룬 연구로서, 창조 이야기(창 1:1-2:4)를 언어적 측면에서 새로이 분석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유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과 민수기 15장 32-36절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를 분석한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 연구”,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33-53을 보라.

12) 이하 본 논문의 성서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¹³ 히, '나의 모아들인 자들에게로'.

야훼 하나님의 신탁은 명료하면서도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1a절). 근거가 뒤따른다. “이는 곧 내 구원이 오며 내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1b절).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이 지적하듯이, 1b절에서 사용된 말은 이사야 46장 13절(“내가 내 의를 가깝게 하였다. 그것이 멀지 않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을 상기시키고, 또한 이로써 제2 이사야(40-55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 제2 이사야를 관통하는 주제가 위로이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역시 베스터만이 정확하게 보는 대로, 여기 제3 이사야의 첫 부분에서는 그 어조가 전혀 다르다. 이곳의 핵심은 위로가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요청이다.¹⁴⁾ 구원과 의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을 위한 근거가 된다.

2a절의 ‘이’와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여성형인데, 바로 앞의 여성 명사 צדקה(즈다카/의)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¹⁵⁾ 히브리어 어법상 뒤따르는 2b절의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다.¹⁶⁾ 그러나 2b절은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므로 결과적으로 의미상 차이는 크지 않다. 공의와 의를 지키고 행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자기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것이다(2b절). 이런 것들을 굳게 지키는 이들은 ‘복’된 이들인데(2a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가깝기 때문이다(1절). 복된 사람의 두 가지 조건, 곧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악에서 손을 떼는 일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악에서 손을 떼라!”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어구는, 예컨대, “선에 부지런해라!” 정도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조건(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구체적이고

13)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A Commentary*, David M. G. Stalker (tran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309.

14) 윗글, 309.

15) 반면 צדקה(미시파트/공의)는 남성 명사이다.

16)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3 vol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2), 3:389.

두 번째 조건(악에서 손을 떼는 일)은 범위가 넓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즉, 모든 악에서 손을 떼는 것에 대응할 만큼 안식일 준수가 포괄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스터만이 말하듯 이 비대칭성은 첫 번째 권고를 더욱 강조해 주게 된다.¹⁷⁾ 안식일 준수는 공의를 지키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의 핵심이 된다.

2절이 ‘복’된 자에 관해서 말한다면, 3절은 공동체 속에서 불행해 보일 수 있는 두 그룹에 관해 말한다. 이방인들과 내시들이다. 두 그룹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23장 1, 3절(히: 2, 4절)을 상기시킨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신 23:1).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에게 속한 사람은 십 대까지도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신 23:3). 신명기의 평결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신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시도 결코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제3 이사야는 신명기 법 내지는 토라에 도전하는 것이다.¹⁸⁾ 옛 평결을 이같이 뒤엎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뒤따르는 내용이 설명해 준다.

4-7절은 이방인들과 내시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내시들과 관련하여, 만일 내시들이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내 언약을 붙잡[으면]”(4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집과 내 담장들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주시고, “결코 끊어

17) Westermann, 윗글, 310.

18) Paul D. Hanson, *Isaiah 40-66* (IBC; Louisville: John Knox, 1995), 194. 악터마이어(Elizabeth R. Achtemeier)는 여기서 제3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을 재해석한다고 말한다. Achtemeier, *The Community and Message of Isaiah 56-66: A Theologic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1982), 35. 그러나 영의 경우는 이 부분의 저자가 신명기의 가르침을 취소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Young, 윗글, 3:391). 이사야 본문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신명기 본문을 재해석했음을 보여 주는 논의로서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 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집 (2017년 6월), 14-42를 보라.

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5절). 5절은 내시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해결해 준다. 첫째, 내시들은 후손을 가질 수 없었기에 그들의 이름은 결국은 지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큰 문제였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식을 남기는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내시들에게 약속하시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것이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들과 딸들은 영생의 방법이니, 하나님께 속한 내시들은 영생 이상의 것 혹은 더 나은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지금 약속받는 것이다. 둘째, 내시들은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 법에 따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집”과 “담장들” 경내에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분명코 들어올 수 있다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집”과 “담장들”은 물리적 건물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의 가문 또는 가족”을 가리킨다.²⁰⁾ 이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내시들의 두려움이 해결된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4·5절은 각각 조건절과 귀결절인데, 조건절(4절)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① 안식일을 지킬 것, ②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것, ③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을 것이 그것이다. 앞에서처럼 여기서도 조건들은 비대칭적이다. 안식일 준수 조건은 구체적인 데 반해, 다른 두 계명은 추상적이다. 의도는 분명하다. 안식일 준수와 다른 일반적인 명령을 병치함으로써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이 극대화된다. 안식일 준수는 실로 하나님의 언약 전체에 비견될 만하다.

6·7절은 이방인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절들은 이방인들이,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에서 나를 참으로 끊어 내실 것이다”(3절)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19) Achtemeier, 윗글, 36.

20) Young, 윗글, 3:392.

를 말해 준다. 6·7절의 구조는 4·5절과 같다. 6절은 조건절이고 7절은 귀결절이다. 조건절에는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 있는데, 마소라 본문의 악센트를 따른다면 두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즉, ① 그분께 시중들고자 하는 것, ②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③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한 묶음이고, ④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다른 한 묶음이다. 이 조건절(6절)의 내용은 앞 단락의 조건절(4절)이 확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6절의 마지막 두 조건은 4절의 첫째와 셋째 조건(안식일을 지키는 것, 언약을 붙잡는 것)을 반복하고, 6절의 첫 세 조건은 4절의 두 번째 조건(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하는 일)을 확장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절에서 셋으로 확대된 조건들(①, ②, ③)은 4절의 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에다 새로운 뜻을 더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4·5절에 관하여 관찰한 바를 여기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식일 준수 조건과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그 범위에 있어 대칭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안식일 준수가 다른 조건들보다 강조된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께 시중들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핵심 조건이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받는 복이 뒤따른다. 7a절에 구체적인 복 세 가지가 나열된다. 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② 그들이 그분의 기도의 집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③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내시들에게 약속된 복들(5절)이 그들의 가장 중심적인 두려움을 만지고 해결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약속되는 복들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속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그들의 걱정을 해결해 준다. 6절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방인들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의 기도의 집에서, 그분의 제단에서, 그분의 정당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환영까지 받는다. 7b절은 이 기쁨의 약속을 더욱 강조해 준다. “이는 (כִּי) 내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כי’를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번역한다면 7b절은 앞선

약속의 근거가 된다. 즉, 7a절의 약속은 “내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키’는 ‘참으로, 실로, 확실히’ 등의 강조적 의미로도 번역되므로, 히브리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도 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참으로, 내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사용자는 두 의미를 다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약속은 강력하다.

내시와 이방인을 위한 희망의 신탁은 7절에서 끝난다. 그러나 8절의 또 다른 신탁은 앞의 신탁을 반복·요약하는 역할을 한다.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주야훼 …의 말씀”이라는 정형구가 실제 신탁의 앞에 나오는 것은 특이하다.²¹⁾ 어찌면 뒤따르는 하나님의 신탁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뜻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아들이셨다. 이제 그 연속으로서(불연속으로서가 아니라)²²⁾ 그는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에게로 ‘더’ 모아들이실 것이다. 여기서 ‘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모아들이는 뜻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이들을 더 모아들이는 뜻일 수도 있다.²³⁾ 바로 앞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이방인들과 내시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었던 이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결코 꿈꿔 보지 못했던”²⁴⁾ 이들이 주야훼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과 연합할 것이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참 이스라엘에 속할 자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

21) 예컨대, Joseph Blenkinsopp, *Isaiah 56-6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9B; New York: Doubleday, 2003), 141을 보라.

22) 와츠(John D. W. Watts)의 다음 말은 적절하다. “이 절은 이미 모이들인 자들과 연합할 더 많은 이들을 야훼께로 모으라는 새로운 초청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이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에 내재한 연속성을 강조한다.”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TX: Word Books, 1987), 250.

23) Young, *윳글*, 3:394.

24) Achtemeier, *윳글*, 37.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후 아직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로 보는데,²⁵⁾ 이 시기에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했을 것이다.²⁶⁾ 3절에 인용된 이방인들과 내시들의 한탄은 상상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 당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소리들이 실제로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훼의 참된 이스라엘에 속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몇몇 목소리, 예컨대 신명기 23장 2-9절, 에스겔 44장 6-9절,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 1-3, 23-31절 등에서 듣게 되는 목소리는 이방인들과 내시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²⁷⁾ 반면, 요나서나 룻기 같은 전승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호의적이었다. 제3 이사야는 분명 후자에 속한다.²⁸⁾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은 요나서나 룻기와는 다른 면도 보여 준다. 제3 이사야는 토라의 가르침 및 이를 이어받은 다른 전승들과 암묵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²⁹⁾ 제3 이사야가 신명기의 평결을 알았을 개연성은 크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목소리인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가 옹호하는 입장들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3 이사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한다는 유력하고 권위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야훼의 이스라엘은 “고백적 공동체”여야 한다.³⁰⁾ 따라서 위 본문의 목적은, 베스터만이

25) 예컨대, Seitz, “Isaiah, Book of (Third Isaiah)”, *Anchor Bible Dictionary*, 3:501-507을 보라.

26) 예컨대, 민경구, *윇글*.

27)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는 모든 내시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블렌킨소프에 의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궁중 일을 위해서든 형벌로써든 거세하는 관습은 없었다. 따라서 본문의 내시들은 “비(非)유대인 출신, 곧 ‘브네 한네키르’(bēnē hannēkār, ‘이방인들’)의 하위 범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Blenkinsopp, *윇글*, 137).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성서 본문들은 내시들에게도 똑같이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경철은 본문의 내시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본다.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114-136. 특히 119-121을 보라. 박경철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본문 중 56:1-8을 이방인과 내시의 정체를 중심으로 살핀다.

28) Robinson, *윇글*, 224.

29) 예를 들어, 느헤미야 13:1-2에 언급된 “모세의 책”은 신명기 혹은 오경을 가리킨다. 이 느헤미야 본문은 신 23:4-5를 인용한다.

30) Blenkinsopp, *윇글*, 136.

말하듯이, “공동체를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자들에게만 한정하고자 하는 제사장적, 율법적 전승에 대항”하는 것이다.³¹⁾

우리가 살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들과 내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듯 보이지만 그 중 구체적인 명령은 단 하나 안식일 준수뿐이었다. 제3 이사야에게 안식일 준수는 전체 야훼 언약의 환유어이고 따라서 토라의 정수인 것이다.³²⁾ 그것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³³⁾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은 제사장 자료, 에스겔, 에스라-느헤미야 등의 강제 이주기 및 강제 이주기 이후 문헌과 전승에서 두드러진다. 비록 제3 이사야가 야훼의 공동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전승들과 논쟁하기는 했지만,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은 이 본문에 종말론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영(Edward J. Young)은 이사야 56장 1-8절(특히, 3-7절)이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³⁴⁾ 본문이 이방인들과 내시들을 언급한다는 면에서, 또한 제3 이사야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영의 주장은 옳다. 그런데 영은 더 나아가서, 제3 이사야가 오경에 도전하거나 신명기 23장에 있는 율법을 “취소하고자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킴에 있어서...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이 부과한 제한들을 초월한다”라고 주장한다.³⁵⁾ 필자는 제3 이사야가 메시아 시대에 토라의 “제한들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취소하고자 일부러 노력”

31) Westermann, *윌겔*, 316. 그러나 제3 이사야가 토라 전승에 도전한다는 이해를 거부하는 오스왈트(John N. Oswalt)를 또한 보라. 그는 이것이 ‘부정확한 이분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본문에서 제안되는 내용과 에스겔 및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다.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457을 보라.

32) Blenkinsopp, *윌겔*, 135.

33) 루슈코프스키는 성서의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에 제3 이사야에서 안식일이 매우 높은 지위를 지니는 점에 주목한다. Ruzskowski, *윌겔*, 72.

34) Young, *Isaiah*, 3:391.

35) *윌겔*, 391.

하지 않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 본문이 종말과 관련이 있든 없든,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개종의 문제 내지는 이방인들과 내시들의 ‘입회’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음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이 문제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다.³⁶⁾

4. 이사야 58장 13-14절

¹³“만약 네가 ^a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내 거룩한 날에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며, 야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하다’ 부른다면, 만약 네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 네 길들을 가지 않고, 네 마음만 따르지 않고, ^b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면, ¹⁴그러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달리게 하며, 너로 하여금 네 조상 아곱의 유산을 먹게 할 것이다.” 야훼의 입이 말씀 하셨다.

^a 히, ‘네 발을 안식일로부터 거두고.’

^b 히, ‘말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58장 1-12절은 “야곱의 집”(1절)을 향해 선포된 참 금식과 거짓 금식에 관한 신탁이다. 그 다음 13-14절에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작은 설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본문이 나온다.³⁷⁾ 13-14절은 앞부분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데, 1QIsa^a를 베낀 필경사는 이를 나타내기 위해 두 단락 사이에 한 행을 비우기까지 했다.³⁸⁾ 13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14절은 그리함으로써 받는 복에 대해 설명한다. 13절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

36) 블렌킨소프는 제2 성전기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이방인들의 개종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lenkinsopp, *윗글*, 137.

37) Blenkinsopp, *윗글*, 181.

38) *윗글*, 181.

지만, 그 구조를 살핌으로써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3절에는 정동사가 셋이 있는데(‘하지 않는다’면, ‘부른다’면, ‘존귀하게 여긴다’면), 각각은 서로 구별되는 의미 단위를 이끈다. 원문의 어순을 따라 13절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만약 네가 [다음을] 하지 않는다면, | a. 안식일을 짓밟는 일을 |
| | b. 내 거룩한 날에 네 마음대로 하는 일을 |
| 2. 네가 [다음과 같이] 부른다면, | c. 안식일을 ‘기쁨’이라고 |
| | d. 야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하다’고 |
| 3. 네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 e. 네 길들을 가지 않음으로써 |
| | f. 네 마음만 따르지 않음으로써 |
| | g. 헛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

1.과 2.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1.은 하지 말 것을 통해서, 2.는 해야 할 것을 통해서 설명한다. 3.은 2.d.를 확장하여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 조건은 모두 일곱 개인데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리 구체적이지 않다. 해야 할 것으로 표현된 명령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 표현과 내용이 반복될 뿐 아니라(1.a.와 3.e.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1.b.와 3.f.의 언어가 반복된다),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르지도 않는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요컨대,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가 말하듯이, 안식일 준수는 전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39) 블렌킨소프가 말하듯이, 이 본문을 뿌리로 하여 미시나의 39개 활동 금지 목록이 발전하였다. Blenkinsopp, *유태*, 182.

의 관계로 설명된다. 신명기 5장 12-15절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안식일 규정에서 아무 지분이 없다.⁴⁰⁾

14절에서 안식일을 준수할 때에 받게 되는 복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다. 여기 사용된 표현은 성서에서 낯익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는 욕기 22장 26절에서 왔을 수 있고,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달리게 하며, 너로 하여금 네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게 할 것이다”는 신명기 32장 9, 13절에서 왔을 수 있다.⁴¹⁾ 반면, 그 내용은 그리 구체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들은 실로 야훼의 참된 이스라엘 (“야곱”)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표현된다.

58장 13-14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현 본문 의 맥락에서 13-14절이 표현하는 주제는 앞선 단락(1-12절)이 말한 바를 뒤집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과 충돌한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1-12절에서 야훼는 백성들의 거짓 금식을 고발한다. 그들의 금식은 사익 추구와 폭력 행사로 더럽혀져 있다(3-4절). 하나님은 택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속박을 풀어 주고, 멍에의 줄을 풀러 주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고, “네 빵을 배고픈 이들에게 떼어 주고, 집 없이 떠도는 불쌍한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헐벗은 이를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6-7절). 요컨대, 참 금식에 관한 본문(1-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례가 아니라 사랑과 인애인 것이다. 반면 13-14절에서 제3 이사야는, 만약 네가 안식일을 지키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설교한다. 안식일 준수는 의례가 아닌가? 안식일 준수가 사랑과 인애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가?⁴²⁾

40) Blenkinsopp, *율글*, 181; 또한 Westermann, *율글*, 340.

41) Westermann, *율글*, 342; Blenkinsopp, *율글*, 182.

42) 예컨대, 스마트(James D. Smart)가 그러한 의견이다.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A Commentary on Isaiah 35,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Young, *율글*, 3:425에서 재인용. 이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의례와 인애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전형적인 이분법이다. 즉, 1-12절은 의례인 금식 대신 인애를 강조하고 13-14절은 의례인 안식일 준수를 강조한다는 이해 말이다. 그러나 영이 정확하게 지적한바, 제3 이사야는 사랑과 인애가 금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서(1-12절) 안식일 준수가 사랑과 인애를 대체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⁴³⁾ 제3 이사야는 참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제 13-14절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참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설교하는 것이다. 와츠(John D. W. Watts)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제는 “야훼의 날인가 우리의 날인가, 야훼의 뜻인가 우리의 뜻인가”와 관련된 다.⁴⁴⁾ 따라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사랑과 인애가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것이다.”⁴⁵⁾ 더욱이, 13절에서 규정하는 안식일 준수 방법은 전혀 율법주의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날을 “기쁨”이라 부르고 “존귀하다”고 부르는 것이다.⁴⁶⁾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다.

둘째, 제3 이사야에서 다시 한 번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영은 이 본문 속의 안식일을 “다른 어떤 법령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느 때든(특히 배교와 유배의 시대에는 더더욱) 이 백성을 하나로 묶어 줄 통합의 법령”으로 이해한다.⁴⁷⁾ 안식일 준수가 부각되는 점은 어쩌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와 가까웠던 이 저자의 배경에 관해서 말해 줄 수 있다(느 9:6-37; 10:31-34[히:

런 이유와 또 다른 몇몇 이유로 인해, 베스터만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58장 13-14절이 앞선 내용과는 다른 문맥이라고 생각한다. Westermann, 윗글, 340. 그러나 정반대의 이해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악터마이어는 이 장이 일관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나 전체 세[즉, 58장]는 1절과 14절에서 야곱을 언급함으로써 시작과 끝을 표시해 주고, 그 속의 대조되는 내용들으로써 단단히 묶인다.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3, 13절)은 야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5절).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시는 것을 택해야만 한다(6절). 그리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14절)”라고 말한다. Achtemeier, 윗글, 60.

43) Young, 윗글, 3:426.

44) Watts, 윗글, 276; 또한 Andreassen, 윗글, 38-39.

45) Young, 윗글, 3:426.

46) Achtemeier, 윗글, 60.

47) Young, 윗글, 3:427.

32-35절; 13:15-22).⁴⁸⁾ 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본문의 시대가 아직 안식일 규정이 복잡하게 발전되기 전임을 암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14절이 그리는 것이 56장 1-8절에서 우리가 본 바 있는 보편주의와 연결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야훼의 총회에 속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는 듯하다. 그러나 58장 1-12절의 청중이 “야곱의 집”이라고 규정된 집(1절)을 볼 때에, 적어도 본문의 최종 형태에서는 13-14절의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 역시 그 청중이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장 13-14절이 56장 1-8절과 모순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58장 13-14절의 목적은 백성을 규탄하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충실하게 준수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망의 교훈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이다. 본문은 “야곱의 집”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본문은 참 이스라엘의 경계를 세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에만 집중할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참된 안식일 준수를 통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써, 또한 56장 1-8절을 염두에 두면서, 이방인 또한 참된 안식일 준수를 통해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결론: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지금까지 우리는 제3 이사야 중 안식일을 언급하는 두 본문을 살펴보았다.

48) 로빈슨은 (56:1-8과 더불어) 이 본문이 느헤미야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페르시아 시대 초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56장에서 이방인들의 두려움으로 표현된 것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둘째, 제3 이사야에서의 안식일은 느헤미야기에서만큼 좁게 규정되지 않는다. 셋째, 58장 13절의 “내 거룩한 날”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에 안식일에 관하여 말할 때의 주요한 특징이다. Robinson, 윗글, 224-225. 앤드레이슨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연대를 제시한다. Andreasen, 윗글, 36-37.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는 전승의 발전을 단순하고 단선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이다. 전승이 하나만 있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내용이나 신학을 근거로 성서 문헌의 연대를 규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세밀하고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서 제3 이사야는 이방인들과 내시들이 야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분과 연합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두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때에 받는 복은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야훼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단 하나뿐인 필수 요건이다. 이스라엘 출신인지 아닌지, 신체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다.

왜 다른 무엇이 아닌 안식일이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 준수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성전과 땅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편리하면서도 엄숙한 정체성의 표지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 준수가 아마도 토라를 비롯한 이전의 성서 전승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안식일 준수는 강제 이주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후의 유대 공동체를 연결해 주고 규정해 주는 도구였다.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이해 역시 이전의 성서 전승에 뿌리박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날은 “야훼의 거룩한 날”인데, 이것은 토라 전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테마이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중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다른 전승들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제3 이사야는 전통적인 안식일 이해를 반복하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의 이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이다. 그는 참된 안식일 준수가 육체적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경(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또한 그는 안식일이 휴식의 날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이날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우울한 날이 아니다. 기쁨의 날이다. 제3 이사야는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을 발견했다. 구약의 다른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면 받는 복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 이사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이 받는 복은 크고 놀랍다. 그들은 야훼께 속하고 그분의 집에서 환영받고 야곱의 유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측면들은 제3 이사야보다 늦은 느헤미야기 같은 성서 자료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대한 이해와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은 진정한 혁신이다.

6. 참고문헌

- 김래용,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기록과 정의”,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1-40.
-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 연구”,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33-53.
-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 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집 (2017년 6월), 14-42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114-136.
-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
- Achtemeier, Elizabeth R., *The Community and Message of Isaiah 56-66: A Theologic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1982).
- Andreasen, Niels-Erik A., *The Old Testament Sabbath: A Tradition-Historical Investigatio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7; Missoula, MT: University of Montana Press, 1972).
- Bacchiocchi, Samuele, *From Sabbath to Sunday: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Rom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Press, 1977).
- Blenkinsopp, Joseph, *Isaiah 56-6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9B; New York: Doubleday, 2003).
- Carson, D. A. (ed.),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Duhm, Bernhard, *Das Buch Jesai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Eskenazi, Tamara C., Daniel J. Harrington, and William H. Shea (eds.), *The Sabbath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New York: Crossroad, 1991).

Frey, Mathilde, "The Sabbath in the Pentateuc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Ph.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2011).

Hanson, Paul D., *Isaiah 40-66*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1995).

Hasel, G. F., "The Sabbath in the Pentateuch", Kenneth A. Strand (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21-43.

_____ and W. G. C. Murdoch, "The Sabbath in the Prophetic and Historical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Kenneth A. Strand (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44-56.

Moore, George Foot,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The Age of Tannaim* (3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 40-66*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Robinson, Gnan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Old Testament Sabbath: A Comprehensive Exegetical Approach*, Beiträge zur biblischen Exegese und Theologie 1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8).

Ruszkowski, Leszek, "Der Sabbat bei Tritojesaja", Beat Huwyler et al. (ed.),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280; Münster: Ugarit-Verlag, 2001), 61-74.

Seitz, Christopher R., "Isaiah, Book of (First Isaiah)", *Anchor Bible Dictionary*

- (6 vols.; Garden City, NY: Doubleday, 1992), 3:472-488.
- _____, "Isaiah, Book of (Third Isaiah)",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Garden City, NY: Doubleday, 1992), 3:501-507.
- Smart, James D.,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A Commentary on Isaiah 35,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 Strand, Kenneth A. (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 Watts, John D. W., *Isaiah 34-66* (Word Biblical Commentary 25; Waco, TX: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A Commentary*, David M. G. Stalker (trans.)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3 vol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2).

검색어

제3 이사야

안식일

내시

이방인

The Sabbath in Third Isaiah:
An Exegetical Study of Isa 56:1-8 and 58:13-14

Dong-Hyuk Kim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Yale University Ph.D.

The Sabbath theology in Third Isaiah (Isaiah 56-66), to which we must pay attention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Sabbath institution during the biblical period,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scholars. After surveying some important pieces that treat the Sabbath in the Old Testament, this paper attempts to do an exegetical examination of the two passages in Third Isaiah that address the Sabbath, that is, 56:1-8 and 58:13-14, and deals with some theolog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exegesis. The passage of 56:1-8 mentions foreigners and eunuchs, and it speaks how to be a member of the true Israel. The passage takes an inclusive stance, and thus it is contrasted with the stances that we may see from Deuteronomy 23:2-9, Ezekiel 44:6-9, Ezra 9, and Nehemiah 13:1-3, 23-31. While implicitly debating with the teachings and rulings of the Torah, it also inherits and develops the Torah's spirit in emphasizing the Sabbath observance as

www.kci.go.kr

the qualification for belonging to the true Israel. The sayings in Isaiah 58:13-14, if compared with the preceding pericope (58:1-12), may appear to underscore rituals rather than love and mercy, but in fact they are not so. The Sabbath is a day of delight, and thus the spir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appearance. Like Isaiah 56:1-8, this passage highlights the Sabbath observance and speaks about the membership of the true Israel. In conclusion, the Sabbath theology of Third Isaiah is rooted in the previous biblical traditions, and it inherits them and debates with them. Over against other biblical traditions, Third Isaiah's understanding of the Sabbath is innovative, and thus it should be understood to have been an important signpost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I hope this paper paves the way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abbath theology of Third Isaiah, the book of Isaiah as a whole, and the prophetic literature in general.

Keywords

Third Isaiah

Sabbath

eunuch

foreigner

- 투고일: 2018년 4월 8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28일

www.kci.go.kr